

JSBMF 선교회원 귀하

2015년 연 말에 선교보고 및 문안 인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2015년도에 사역한 내용들을 JSBMF 회원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5년도는 종이 선교사역을 시작한지 2년 차입니다.

2012년 말부터 시작해서 선교지 확정과 준비를 위해 2013년까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며 전략과 계획을 세우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마음을 드렸습니다.

파라과이는 제가 청년시절 가족과 함께 이민왔던 곳으로 조금 익숙했지만 남미에 3번의 탐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다시 파라과이로 보내시는가?' 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처럼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며, 오랜 세월 카톨릭의 지배로 인해 신앙의 토착화와 토속 신앙으로의 변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삶의 변질은 심각한 수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모습으로까지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여, 다시 태어나라!"는 모토로 선교사역의 중심을 잡고 어린 아이들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교 소명은 교아사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활하며 받은 도전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아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난잡한 동거로 인해 아이를 낳고 살다 기를 수 없게 됐을 때 국가에서 데려다 맡기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갓난 아이 때부터 데려다 기르는 무료기숙학교입니다.

정식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파라과이 전국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형제 많은 아이들 중에서 선택하여 무료숙식과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자라나게 만들어 부패와 거짓이 난무한 파라과이 전역에 빛을 발하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그 준비의 일환으로

★ 현지인 섬김입니다.



Christine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진학하지

못함을 알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지금은 잠시 학업을 쉬고 있기에 장학금은 중단한 상태지만 제 옆에서 사역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또 2명의 초등학생들은 6학년, 5학년으로 판자촌에서 살고 있기에 장학금을 주고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 현지인교회 섬김

호렙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섬겨왔던 나눴습니다.

매주 토요일 간식을 준비  
번 매주 토요일에는 생일파  
열어 그 달에 생일 맞는 아  
호렙교회의 역사는 30년이  
30여명의 아이들이 출석하



현지인 교회입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아이들과 교제를

해서 함께 성경공부한 후 음식을 나누었고, 한 달에 한  
티를

이들을 축하하며 지냈습니다.

넘었음에도 자립하지 못하고 10명 정도의 어른들과  
는 교회입니다. 연약하기에 돕는 것을 사역의 한 모퉁

이로 생각하고 지난 왔건만 사람을 이용 만하려는 파라과이 사람들의 습성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이곳 뿐 만아니라 중남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대하기 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답니다. 특히 외국인 그것도 한국 사람들에게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 가정회복교회

지난 해 파라과이는 홍수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겨났고, 수재의연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재의연금이 전달된 곳이 <가정회복교회>였습니다.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의 가난한 빈민촌에서 사역하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상황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분들입니다. 남편이나 청년들은 대부분 교도소에 가 있고 여자 혼자 벌어 아이들 4~5명과 생활해야 하는 열악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부부가 열심히 교우들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목사님의 생활을 먼저 돕고, 청소년을 훈련해서 유년부, 유아부를 가르치도록 체계를 세워가는 일에 재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청소년 사역에 중점을 두도록 격려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생활 보조와 함께 청소년 일군을 키우고자 매 주 토요일에는 기타 강사를 두고 5명의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학교에도 못 가는 청소년들이기에 악기를 가르치므로 소속감을 주고, 악기를 통해 희망과 하나님 찬양하는 일군으로 키우려는 계획입니다.

이번 성탄절부터 찬양할 수 있도록 기타 강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입했던 2개의 기타에 새 것 2개를 더 구입해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습하고 있습니다. 또 키보드도 구입해서 여자 아이들에게 배우도록 했습니다.

또 기타 강습이 마치면 계속해서 드럼도 가르치려는 계획입니다.

교회이름: Iglesia Restaurando Familias

담임목사: 세페리노(Ceferino)(생일: 1965년(50세), 사모님:1965년, 결혼 1989년, 자녀 6남1녀)

목사안수: 2012년, 파라과이 하나님의 성회

교회창립: 2012년 6월6일

교인 수: 52명(어른24명, 청소년 28명), 집사 4명(남자1, 여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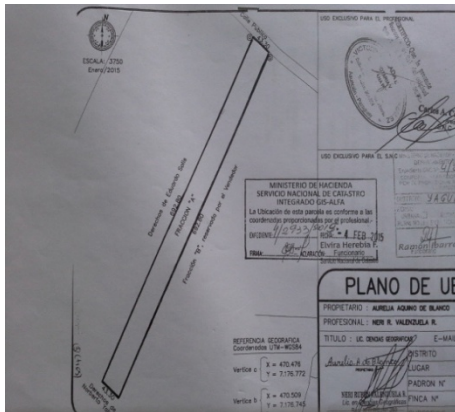
이번 12월 23일에 성탄 축하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운 악기를 통해 찬양과 축제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날 가정회복교회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삼륜 용달차이기에 성탄절 선물로 주려는 계획을 갖고 알아보고 있습니다.(12월의 선교후원금은 이곳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2월에는 15명의 교우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기 전에 수련회 장소에서 침례를 베풀려는 것입니다.

## ★ 선교부지 매입

그동안 이곳 파라과이 선교의 기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정성으로 **지난 3월2일**에 선교부지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 주시는 선교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장소: 야과론(Yaguaron)으로 수도 아순시온에서 46km  
(자동차로 1시간30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 3ha(692.80m X 43.30m, 약 7.4에이커)로 처음 기도했던 1ha

3배나 넓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금액: 약 \$20,000(US)

지금은 풀만 무성한 빈 땅이지만 이 안에 성전, 기숙사, 학교, 운동장 그리고 농장이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던 아이들이 무료기숙학교와 고아원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파라과이를 변화시키는 일군으로 자라나는 꿈을 꾸어봅니다.

## ★선교회 조직 및 등록

선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파라과이에 선교회 조직을 마치고 **지난 3월 13일(금)** 내무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선교회 이름은 <Esperanza del Paraguay>로 '파라과이의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이사회는 3명으로 저와 함께 김만영 장로님, 현지인 Amada Cancian 변호사로 시작하며 앞으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로 더 늘려 갈 계획입니다. 등록절차가 마무리 되기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된다기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 성전 건축 계획

내 년 후반기에는 성전을 포함한 복합건물 1 동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현실이 대부분의 건축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에 건축비가 많이 들고, 외국인이 하는 일이라면 더 많은 인건비와 나태함으로 일군 고용해서 일 시키는 것이 힘들기에 시간의 여유를 갖고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고는 어렵기에 시간을 두고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내 년에 시작할 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JSBMF 선교회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동안 기도해 주셔서 선교 초년병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게 하였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투명한 재정관리가 선교의 초석을 쌓는 지름길이라 생각해 첫 해였던 작년부터 후원해 주신 동역자 분들께 재정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선교보고 만이 아니라 재정보고도 함께 보내드려야 함에도 회계년도를 연말로 정했기에 내년 초순에 2015년도 재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배 목사님과 동역자 그리고 선교회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도에 계획하신 일들을 통해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 해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행복과 강건함이 영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파라과이 선교사

남학현, 남옥진 올림

## <2016년 기도제목>

1. 성령충만의 삶이 지속되기를 위하여
2. 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3. 고아사역, 무료기숙학교를 위하여
4. 성전건축을 위하여